

‘2018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 참가

글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팀장 전춘자

산업안전보건,
어렵지 않아요!



2018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가 지난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울산 시에 위치한 대현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많은 기업과 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를 비롯한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에서 참가하였다. 행사에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자 및 근로자 3,000여 명이 참석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 행사는 울산지역 기업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 및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고, 울산산업보건센터가 동참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서로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도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울산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2018 산업안전지식 공유장터'에 참가하여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고 있다.

행사 개막식에 울산산업보건센터장이 내빈으로 참석하였고, 부산경남 지역본부 교육사업팀에서도 참가했다. 협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한 홍보와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울산지역 사업장의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70여 개 업체가 동참해 전시부스를 설치했으며, 산업안전 특별강연도 진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진 체험관, 산업재해 가상현실(VR) 체험코너, 생활안전 코너, 산업안전 골든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재미를 더했다. 특히 울산

산업보건센터는 부대행사로 진행된 '심폐소생술 체험'을 맡았다. 관람객들에게 심폐소생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식 나눔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여 원하는 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우리에게 는 일상적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대중에게는 다소 전문적일 수 있어 의미가 부가될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서였을까,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언제나 솔선수범하는 울산산업보건센터 보건관리팀 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팀장으로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